



2011년 10월 2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우려’는 크지만 ‘기대’도 있다

• 경제분석

미국: 심리 위축 불구하고 소비지출 둔화 제한적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완화 기대, 중국 증시 사흘 연속 상승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에스오토텍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GKL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지주회사, 니치마켓,

YTN, 고려아연, 주성엔지니어링, 태광, 현대백화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0/19(수)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10/26(수) |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855.92 | 1,805.09 | 1,838.38 | 1,898.32 | 1,888.65 | 1,894.31 | |
| | 등락폭 | 17.02 | -50.83 | 33.29 | 59.94 | -9.67 | 5.66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486(6) | 156(9) | 621(8) | 691(16) | 305(10) | 428(11) |
| | | 하락(하한) | 345(0) | 714(2) | 233(1) | 165(0) | 513(1) | 374(1) |
| | ADR | 107.42 | 97.84 | 108.86 | 127.08 | 135.02 | 126.47 | |
| | 이격도 | 10 일 | 102.77 | 99.43 | 100.83 | 103.37 | 102.32 | 102.16 |
| | | 20 일 | 104.75 | 102.02 | 103.79 | 106.57 | 105.33 | 105.18 |
| | 투자심리 | 90 | 80 | 80 | 80 | 70 | 70 | |
| | 거래량 (백만 주) | 336 | 342 | 350 | 369 | 349 | 379 | |
| | 거래대금 (십억 원) | 5,696 | 6,680 | 6,356 | 6,664 | 5,970 | 5,490 |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88.17 | 469.98 | 481.22 | 493.03 | 492.69 | 497.51 | |
| | 등락폭 | 4.74 | -18.19 | 11.24 | 11.81 | -0.34 | 4.82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557(30) | 178(15) | 727(23) | 740(37) | 391(21) | 516(20) |
| | | 하락(하한) | 393(1) | 795(7) | 239(1) | 225(3) | 565(6) | 424(9) |
| | ADR | 117.35 | 106.97 | 118.59 | 136.55 | 147.18 | 137.38 | |
| | 이격도 | 10 일 | 104.78 | 100.05 | 101.60 | 103.24 | 102.45 | 102.82 |
| | | 20 일 | 107.51 | 103.59 | 105.95 | 108.00 | 106.95 | 107.25 |
| | 투자심리 | 90 | 80 | 80 | 80 | 70 | 70 | |
| | 거래량 (백만 주) | 642 | 700 | 533 | 564 | 652 | 527 | |
| | 거래대금 (십억 원) | 3,909 | 3,976 | 3,450 | 3,469 | 3,684 | 3,231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유가증권 | 매수 | 3,425.7 | 722.5 | 1,061.1 | 198.3 | 161.4 | 349.2 | 78.2 | 33.3 | 240.7 | 348.9 |
| | 매도 | 3,477.1 | 825.5 | 1,011.6 | 174.8 | 162.3 | 428.0 | 43.3 | 32.4 | 170.8 | 244.0 |
| | 순매수 | -51.4 | -103.0 | 49.5 | 23.5 | -0.9 | -78.8 | 34.9 | 0.9 | 69.9 | 105.0 |
| | 10월 누계 | -2,831.4 | 887.8 | 1,765.9 | -73.9 | -110.4 | 61.7 | 74.6 | 15.4 | 1,798.4 | 177.8 |
| | 11년 누계 | 897.1 | -5,844.6 | 6,312.4 | 1,479.8 | -1,537.6 | -3,384.6 | 1,743.9 | -1,782.7 | 9,793.7 | -1,365.0 |
| 코스닥 | 매수 | 3,058.7 | 63.3 | 114.1 | 15.1 | 18.0 | 47.6 | 9.4 | 6.0 | 18.0 | 32.9 |
| | 매도 | 3,078.8 | 70.8 | 86.1 | 6.7 | 11.8 | 42.4 | 6.5 | 2.2 | 16.5 | 33.3 |
| | 순매수 | -20.1 | -7.5 | 28.0 | 8.4 | 6.2 | 5.3 | 2.9 | 3.8 | 1.5 | -0.4 |
| | 10월 누계 | 336.0 | -360.7 | -16.4 | 23.0 | 13.2 | -135.5 | 17.3 | -12.9 | 78.5 | 41.1 |
| | 11년 누계 | 150.3 | -834.5 | 938.6 | 142.5 | 276.3 | 76.0 | 141.6 | -131.1 | 433.3 | -254.4 |

‘우려’는 크지만 ‘기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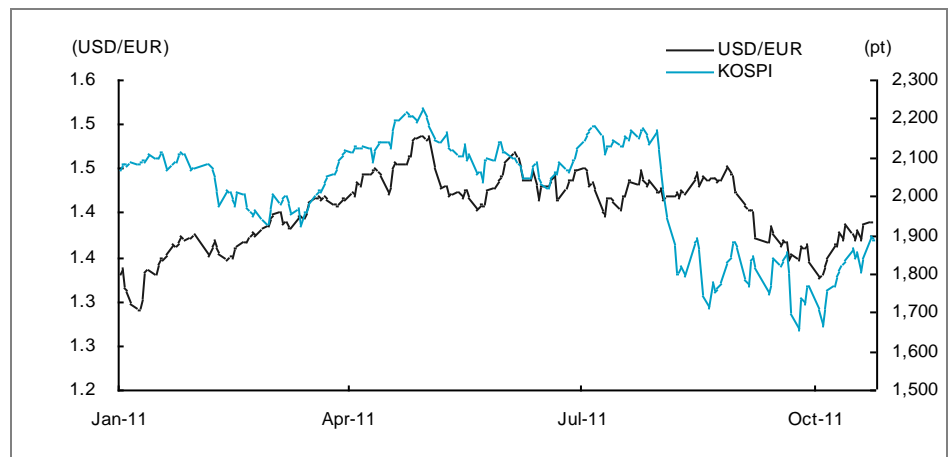
| | |
|------------|---------------|
| 10월 월간 밴드 | 1,700-1,900pt |
| 2011 연간 밴드 | 1,650-2,150pt |
| 12MF PER | 9.1배 |
| 12MF PBR | 1.10배 |
| Yield Gap | 7.5%P |

- ▶ EU재무장관 회담 취소되며 유로존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어
- ▶ 우려를 상쇄시킬만한 재료도 인식해야: ‘충격과 공포’, 미국/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
- ▶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업종별 키 맞추기 예상: 금속/광물, 에너지, 화학, 산업재

■ 유로존은 여전히 터널 속에

10월 중순 슬로바키아 의회가 EFSF 확대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유로존은 한숨 돌리는 듯 했다. 유로존 국가간 공조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베어마켓셀리도 이어졌다. 26일에 추가로 EU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에 이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때가 됐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런 기대감에 부응해 코스피는 24일 종가기준으로 8월 폭락이후 최고를 기록하며 1,900선에 접근하기도 했다.

[그림 1] 2011년 이후 코스피 및 달러/유로 추이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유럽 정상회담에 앞서 예정되어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Key Issue였던 1) EFSF 기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2)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의 ‘구체적인’ 규모, 3) 그리스 헤어컷 대한 ‘구체적인’ 비율도 이번 유로존 정상회담에서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원론 수준의 합의를 예상한다.

■ 실망스럽지만 증시는 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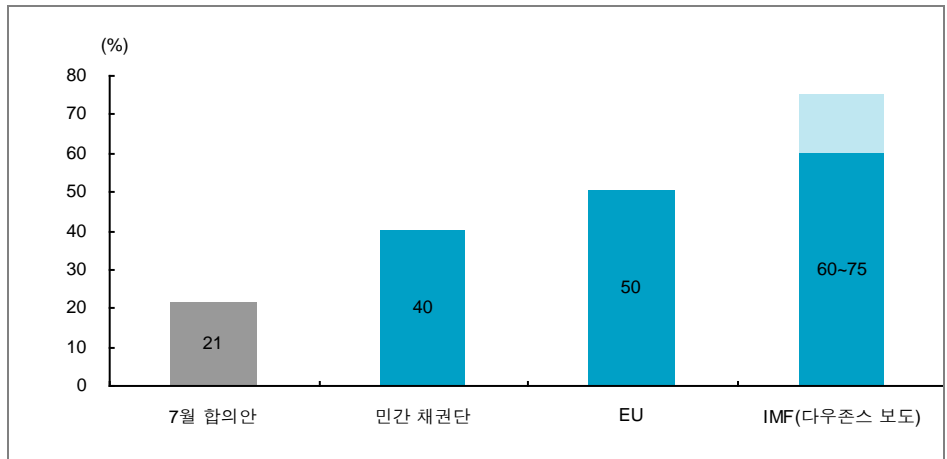
한국시간 26일 밤 현재, EU 정상회담 결과를 앞두고 다양한 외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紙는 EU정상회담 합의안 중, 은행 자본확충 합의 (Consensus on banking package)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서에는, ▲ 은행은 자본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을 먼저 사용해야 하고, ▲ 2012년 6월까지 Core Tier 1 비율을 9% 목표로,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과 보너스 지급이 제한되며, ▲ 필요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EFSF를 통해 자본확충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 자본 확충 합의 초안 링크)

(<http://www.documentcloud.org/documents/259664-111026euheadsdraftstatementuncl.html#document/p2>)

이 내용이 그대로 EU 정상회담 합의안에 포함된다해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특히 앞서 언급한 EU 정상회담의 Key Issue 중 1)번과 2)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그리스 국채 헤어컷도 당장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Dow Jones는 익명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IMF가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을 최소 60%에서 많게는 70~75%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헤어컷 비율 합의 없이 EFSF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면(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적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한다.

[그림 2] 그리스 국채 헤어컷 수준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료: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앞서 언급한 것 처럼, 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식에 26일 국내증시도 하락 출발했다. 그러나 연기금/국가지방 매수세 강화 및 유럽 실망감을 흡수한 호재 부각으로 상승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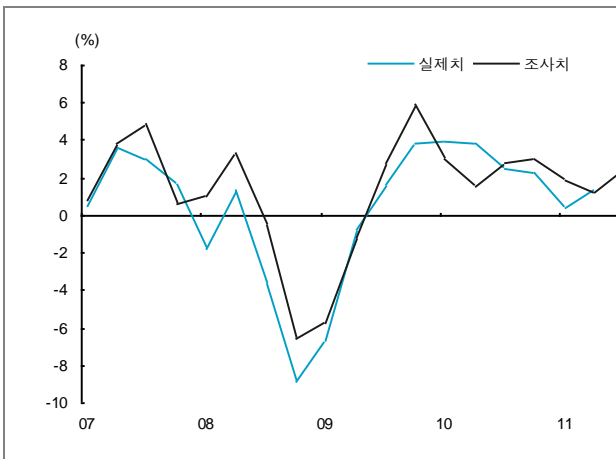
■ 실망감을 덮은 재료는 무엇인가

첫번째, 더 이상 시간 끌기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시장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에서 기존의 ‘시간끌기’가 아닌 ‘충격과 공포’라는 관점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 “나와야 하고,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증시를 떠 받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EU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시장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독일 분데스탁(하원은) EFSF에 대한 추가 증액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예상대로 찬성 503표 대 반대 89표로 가결하며 ‘실탄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드라기 신임 ECB 총재는 국채매입 지속 입장을 시사하며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 다만 26일 유럽 증시에서 그리스 국채 헤어컷 논의가 교착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며 당일 상승폭을 반납한 만큼,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진전 소식이 들려온다면 시장에 추가적인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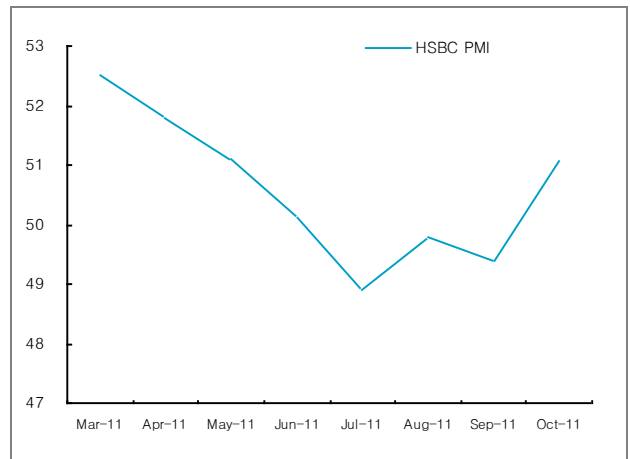
세번째, 11월 초 G20 정상회담까지 시장의 눈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미국 및 중국 기대감이 유럽 우려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금주 월요일 발표한 10월 HSBC 제조업 PMI는 51.1로 4개월만에 50 선을 넘기며 경기 기대감이 살아났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의 간축완화 시사에 대한 소식이 국내 증시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미국은 27일 3분기 GDP를 발표한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킬 재료로 기대할만 하다.

[그림 3] 미국 GDP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중국 HSBC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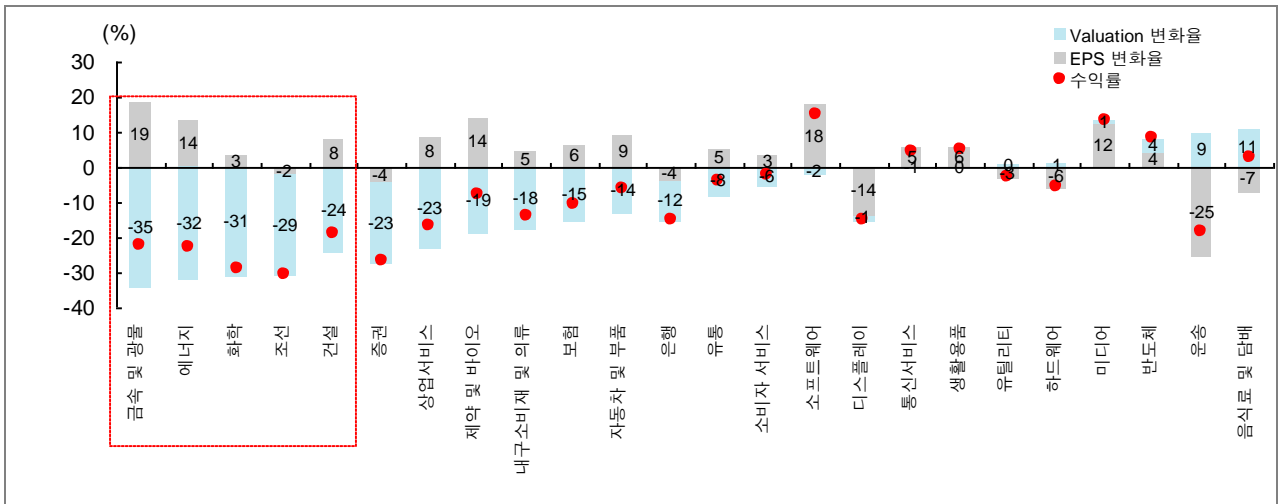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키맞추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키맞추기를 하며 미니 랠리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베어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 유럽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달려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뒤를 돌아보고 어떤 업종들이 뒤쳐져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업종 수익률을 밸류에이션(PER)과 EPS로 보았을 때, 특히 EPS 변동에 비해 주가의 낙폭이 심한 업종이 키맞추기 과정에서 부각될 것으로 본다. 그림 5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26일까지 MKF500 기준 업종별 지수의 변동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앞쪽에 위치한 금속/광물, 에너지, 화학, 산업재 업종이 키맞추기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업종으로 예상된다.

[그림 5] 8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 수익률 / EPS변동 / Valuation변동



주: FnGuide MKF500 기준 업종 분류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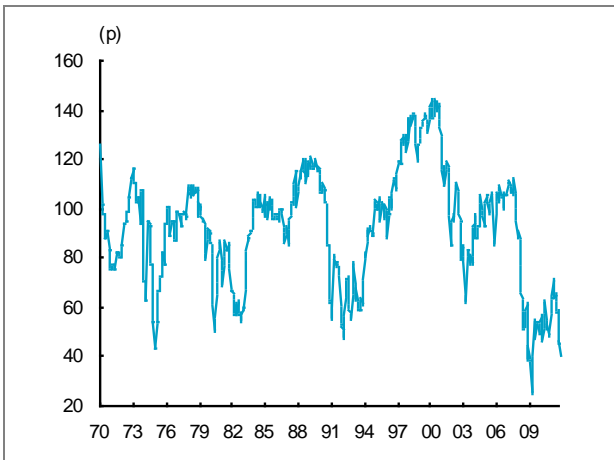
미국: 심리 위축 불구하고 소비지출 둔화 제한적

- ▶ 10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39.8로 전월비 6.6p 급락, 예상과 전월치는 46을 상회
- ▶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심리 위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 ▶ 향후 일자리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고, 구매계획 등을 감안할 때 소비 둔화는 제한적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급락,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모두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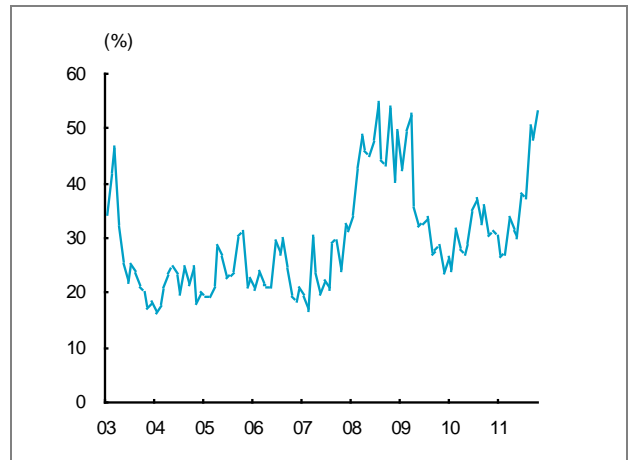
10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39.8로 전월보다 6.6p 급락했다. 이는 46을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신뢰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러한 부진은 사업 여건이 악화되는데다 향후 소득이 감소하고 주가 약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53%를 넘어 직전 금융 위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림 1]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컨퍼런스보드

[그림 2] 12개월 이내 주가 하락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



자료: 컨퍼런스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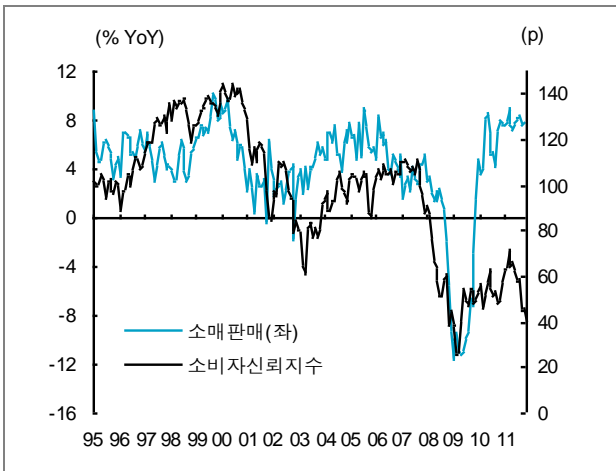
■ 현재의 심리 위축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시계열 자료를 보면,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 2009년을 제외하면 1970년 이후 40을 하회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금융위기 때의 여건과 비교했을 때, 심리 위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와 달리, 현재 가계 재정은 금융 경색으로 인한 압박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 비율은 2007년 하반기 14%에 육박했으나 2011년 2분기말 11%로 떨어졌다.

■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둔화 폭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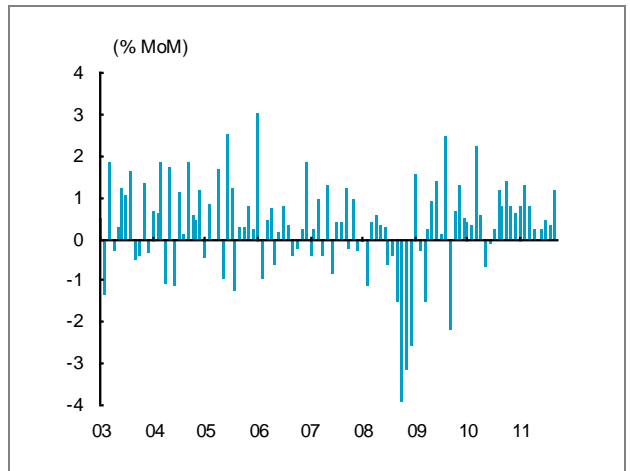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위축된 면이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향후 소비지출 급락을 유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첫째, 2009년 이후 소비 심리와 소비지출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 위축을 소비 감소로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이질성은 더 심해졌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지난 3개월 동안 소매판매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9월 소매판매는 자동차(3.6%), 가구, 의류 등에 힘입어 전월비 1.1% 늘었다.

[그림 3]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매판매



자료: 컨퍼런스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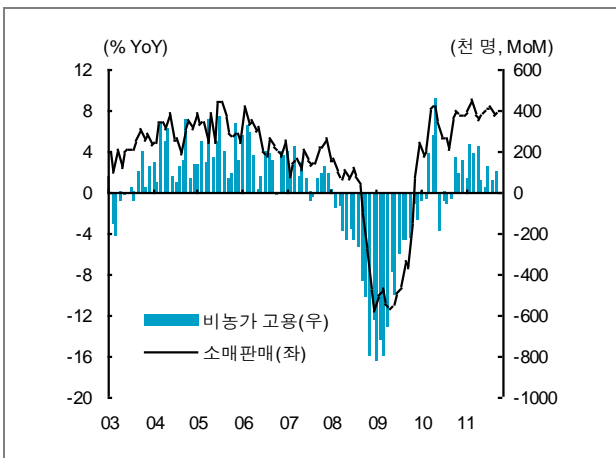
[그림 4]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미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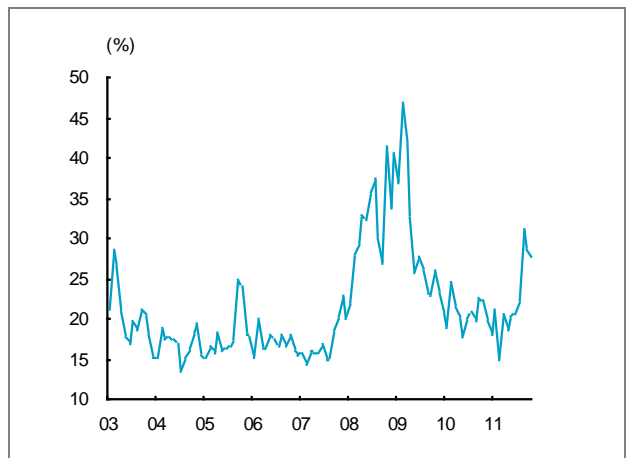
둘째, 6개월 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즉, 고용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과 소비지출 간 관련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고용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자들의 지출 성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림 5] 비농가 고용 증감과 소매판매



자료: 미국 상무부, 미국 노동부

[그림 6] 6개월 후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



자료: 컨퍼런스보드

셋째, 10월 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가전기기 등의 내구재 구매 계획을 줄일 의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구매 계획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고, 세탁기, TV 등 가전기기 구매 의사는 오히려 전월보다 높아졌다.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2월 이후 계속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심리와 실제 소비지출 간에 직접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 부진이 소비지출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향후 일자리 여건에 대한 기대감과 내구재 구매 계획이 악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심리가 취약하더라도 소비지출 둔화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정책완화 기대, 중국 증시 사흘 연속 상승

- ▶ 중국 원자바오 총리, 적당한 시기에 거시경제정책 미세 조정 방침
- ▶ 중국 원자바오 총리, 물가안정, 구조적 세금 감면, 민생개선, 신흥산업 및 중소기업 부양 방침
- ▶ 중국 상무부, 재정부, 인민은행, 12차 5개년 계획기간 소비확대 방안 발표

상해증시 사흘 연속 상승
거래량 큰 폭 증가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및 유럽 우려 재부각으로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통화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오름세로 전환됐다. 장중 한때 지수 상승폭이 1.5% 넘게 확대됐지만 단기 차익매물 출회로 장 후반 다시 축소됐다. 지난 25일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여전히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적당한 시기에 거시경제정책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언급해 이전의 강경한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났다. 또한 민생개선과 신흥산업 및 중소기업 부양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 종료의 전망과 향후 개별 산업 부양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상무부가 내년부터 '소비촉진의 달'을 지정하고 내수소비를 부양할 계획을 발표한 것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거래대금 규모가 최근 한 달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2배에 가까운 900억위안 후반대를 기록했다. 헬스케어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 미디어, 환경보호 등 신흥산업 관련주와 가전, 백화점 등 소비관련주가 강세였다.

H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
10,000p선 회복

■ 홍콩 시장

H지수의 상승세가 4거래일로 연장되면서 6주 만에 10,000p선을 회복했다. EU 재무 장관 회의 최소, 미국 소비심리 악화 등의 악재로 1.5% 넘게 하락 개장했으나 중국 통화완화 조짐과 소비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고 특히 건설, 건설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 구분 | 10/26(수) | 전일 대비(%) | 5거래일 전 대비(%) | 1개월 전 대비(%) | 연초 대비(%) |
|------------|-----------|----------|--------------|-------------|----------|
| 중국 상해종합 | 2,427.48 | 0.74 | 2.10 | 2.89 | -13.55 |
| 홍콩 H | 10,050.59 | 1.92 | 6.37 | 12.71 | -20.81 |
| 인도 SENSEX | 17,254.86 | 1.86 | 0.99 | 4.87 | -15.87 |
| 러시아 RTS | 1,502.23 | 0.15 | 4.42 | 12.02 | -15.14 |
| 브라질 보베스파 | 56,285.99 | -1.07 | 2.28 | 7.57 | -18.78 |
| 베트남 VN | 412.10 | 0.66 | 2.73 | -3.62 | -14.97 |
| MSCI 이머징마켓 | 955.28 | 0.62 | 2.39 | 8.50 | -17.03 |

주: 26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종목/테마 | 내용 |
|--|---|
| S-Oil(010950) ▶116,000원(+5.45%) |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제 마진 개선과 기저효과로 인한 3분기 실적 개선 및 4분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강세 - 4분기 계절적 성수기로 수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3.3%, 8.9% 증가한 8조6,000억원, 5,02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세아제강(003030) ▶80,500원(상한가) | 남북러 가스관사업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한가 -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의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이 성사될 경우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는 총 34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동사는 강관 매출 비중이 100%로 높고,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돼 있어 최대 수혜주로 부각 |
| 코오롱아이넷(022520) ▶1,580원(상한가) | 매출 급증에 따른 3분기 연속 실적 호조 소식에 상한가 -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0%이상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실적 호조를 보이자 회사 실적 구조가 안정화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한가 - 남미와 동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 결과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28일 합병을 통해 코오롱글로벌 출범을 앞두고 있음 |
| 모나리자(012690) ▶2,150원(상한가) | 치매관리법 개정안 제출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 국회에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 -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특별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무와 지역균형발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목적 |
| U-헬스케어주 | 삼성그룹의 바이오헬스케어사업 강화 소식에 강세 - 삼성그룹이 삼성서울병원 지월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일류화 추진단장으로 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선임하며 바이오 헬스사업 강화를 본격화 한다는 소식에 강세 -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상한가), 유비케어(032620, +12.32%),인성정보(033230, +11.58%), 비트컴퓨터(032850, +10.67%), 뷰웍스(100120, +10.00%) 등 강세 |
| 스마트그리드주 | 러시아 전력망 구축 관련 협력 확대 기대감에 강세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러시아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기대감에 강세 - 위지트(036090, +12.98%), 파워로직스(047310, +7.80%), 르네코(042940, +6.93%), 옴니시스템(057540, +6.06%), 포스코 ICT(022100, +6.00%) 등 강세 |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엠에스오토텍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 | | | | | | |
|---------------------------|---|------------|-------------|------------|------------|------------|
| 엠에스오토텍 (123040) | - 차량 경량화와 관련한 핵심 제조공법인 핫스탬핑(Hot Stamping) 기술을 보유.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른 수혜 지속 전망 - 현대차그룹의 해외 현지공장 확장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도와 브라질에서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효과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될 전망 - 현대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할인요인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추정 EPS 기준 PER 4배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됨 | | | | | |
| | (원, 십억원, 배)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 2010. 12A | 75.3 | 3.0 | 8.6 | 1,338 | 4.5 |
| | 2011. 12F | 100.0 | 8.8 | 10.0 | 1,232 | 4.0 |

- 편입 제외 종목: 이녹스(차익실현 +50.9%)

(단위: 원, %)

| 종 목 (코 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투자 포인트 |
|----------------------------|-------------------|------------------|--|
| 액트 (131400) | 3,000 (+18.8) | 2,525 (10/18) | - 올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2배 이상 충분히 달성 가능. 3분기 매출액은 196억원(YoY +19.5%),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6억원(YoY +62.5%) 이상으로 예상 - 하이디스, 태양기전, 우리LED, 팬텍 등 기존에 비해 마진을 높은 매출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OPM은 전년도 7%에서 올해 13%까지 달성 가능할 전망 |
| 차이나킹 (900120) | 3,290 (+28.5) | 2,560 (10/11) | - 고부가 브랜드로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될 영생활력이 4분기(3~6월)의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안정권에 진입 - 동충하초 유통과 원강 및 영생활력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종의 건강기능차를 출시해 신규 매출 기대 |
| 오스템임플란트 (048260) | 11,350 (+40.1) | 8,100 (10/7) | - 중소 임플란트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과 작년 하반기 출시한 TS모델(단가 10% 인상)의 판매 호조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전망 -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이 40억원 이상 발생해 3분기 순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 |
| 에스엘 (005850) | 27,350 (+14.0) | 24,000 (9/29) | - 헤드램프 국내 1위 업체로 현대/기아차 생산량 증가로 성장세 지속 - 헤드램프 고사양화에 따른 수혜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사업 확대 기대 -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
| 플랜티넷 (075130) | 6,060 (+34.7) | 4,500 (9/29) | - 연말 예상 배당금이 3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6% 상회 - 내년 판교 유스페이스 SPC(97억원 출자)에서 100억원~130억원의 특별배당을 받을 경우 2012년 EPS 증가율은 194%에 달할 전망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액트, 오스템임플란트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액트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차이나킹하이웨이에서 실시한 중국 현지 공장 방문 및 기업설명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GKL 외 9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 편입종목 (코드) | 현재가 (수익률) | 편입가 (편입일자) | 2011년 추정실적 | | | |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EPS | PER |
| GKL (114090) | 21,100 (+5.5) | 20,000 (10/21) | 547.5 | 145.9 | 75.4 | 1,220 | 17.3 |
| | | | - 9월 신용 공여(크레딧 제공) 중단으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으나, 신용 공여 중단은 일시적일 전망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 - 환율상승, 홀드율(Hold rate) 개선과 함께 기저효과에 힘입어 3분기 및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 | | |
|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 42,750 (-1.7) | 43,500 (10/18) | 96.5 | 87.1 | 84.7 | 7,847 | 5.4 |
| | | | - 자회사 골드윈코리아(지분율 51%) 및 영원무역(지분율 50%)의 실적 개선 지속 전망 | | | | |
| 현대중공업 (009540) | 289,500 (+3.9) | 278,500 (9/29) | 25,117.9 | 3,047.9 | 3,229.5 | 52,693 | 5.5 |
| | | | -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비조선 부문의 수주 모멘텀을 주목.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 | | |
| 기아차 (000270) | 73,000 (+1.5) | 71,900 (9/29) | 26,754.3 | 2,042.4 | 3,712.4 | 9,158 | 8.0 |
| | | | -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 | | | |
|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 11,000 (+40.3) | 7,840 (9/29) | 341.2 | 41.4 | 40.1 | 1,280 | 8.6 |
| | | | - 삼성전자 내 터치패널 공급업체 중 중대형 터치스크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 - 갤럭시탭2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 | | | |
| 풍산 (103140) | 32,550 (+28.1) | 25,400 (9/26) | 2,599.0 | 190.2 | 177.4 | 6,333 | 5.1 |
| | | | -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감안해도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 방산 매출 증가에 따른 4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 유효 | | | | |
| 대한항공 (003490) | 50,200 (+16.1) | 43,250 (9/23) | 12,494.1 | 753.7 | 305.9 | 4,442 | 11.3 |
| | | | - 국제선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 | | | |
| S&T대우 (064960) | 34,750 (-3.4) | 33,900 (8/24) | 776.5 | 60.1 | 68.6 | 4,693 | 7.0 |
| | | | - 한국GM 및 GM Global의 판매 회복 및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강세 지속, 방산사업 매출 본격화에 따른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 | | | | |
| 에스원 (012750) | 55,800 (+2.4) | 54,500 (8/19) | 942.4 | 146.6 | 123.3 | 3,658 | 15.3 |
| | | | - 시스템 가입자 증가 및 ARPU 개선, 자회사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 - 중국법인 설립은 내수 중심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성장인 가능한 중국 보안 시장 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 | | | |
| NHN (035420) | 236,500 (+26.8) | 186,500 (8/19) | 2,105.2 | 659.7 | 500.9 | 11,245 | 21.0 |
| | | | - 검색광고 매출 성장 및 클릭수 증가, 모바일 검색 광고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 |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중공업, 기아차, 대한항공, NHN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지주회사: CJ 그룹의 다음 선택은?

■ 대한통운의 원활한 인수 완료

CJ그룹의 당면한 이슈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본 계약 및 대금납입을 앞둔 대한통운 인수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한통운 인수대금은 주당 인수가격과 주식수가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지만 일단 1.9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지주회사 규정상 CJ제일제당과 CJ GLS는 동일한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데, 각각 차입과 삼성생명 지분매각, 차입과 증자를 통한 자금 마련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 진행되는 움직임: 삼성생명 주식 매각 및 CJ GLS 공개매수

대한통운 인수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되는 움직임은 삼성생명 주식매각 및 CJ GLS 공개매수이다. 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CJ제일제당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연내에 교환사채 발행 혹은 장내 매각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② CJ는 CJ GLS를 공개 매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CJ는 물류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대한통운과의 합병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 대한통운과 CJ GLS 합병 가능성, 대규모 추가 M&A는 없을 전망

첫째, 대한통운과 CJ GLS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합병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반대 혹은 지주회사 규정상 어려움을 지적하지만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분할과정을 거친다면 합병의 걸림돌은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한통운 인수는 인수대금 1.9조원이 소요되고 대한통운의 자산 규모가 CJ 그룹 자산의 24%에 달하는 대규모 인수이다. 따라서 CJ그룹의 재무여력상 향후 그룹차원의 또 다른 대형 M&A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자회사 별로 사업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로 한정될 전망이다.

■ 결국 CJ그룹의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전망

그 동안 CJ 주요 회사들의 주가는 대한통운 인수, 계열사간 삼성생명 지분 매각/매입 등 영업 이외의 이슈로 변동성을 보여왔다. 특히 CJ 계열사 투자의 걸림돌로 인수합병 등 중요 사항에 관한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우려가 완화되고 주가 재평가가 가능해져 (주)CJ 및 CJ 자회사를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첫째, 향후 그룹차원의 M&A, 지분 매입 등 영업외적 요소는 소멸되고 개별 회사별로 빠르게 사업강화가 이루어져 CJ제일제당, CJ오쇼핑 등 주요 회사들의 주가는 본래의 영업가치로 평가 받을 전망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둔화 우려 속에 방어적 성격을 지닌 음식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유통/물류 분야에서 확고한 1위를 구축한 CJ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매력이 부각되어 CJ의 기업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니치마켓: 가속화되는 자동차 경량화

■ 경량화는 자동차 업계의 영원한 숙제

자동차 경량화는 자동차업계의 영원한 과제이다. 경량화가 자동차 업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경량화는 자동차의 기본성능인 가속력과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2) 환경규제 및 고유가 시대의 도래로 연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3) 차세대 자동차인 EV(Electrical Vehicle)에서도 경량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는 경량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다.

■ 자동차 경량화는 구조, 재료, 공법 등 3가지 방향으로 접근 중

자동차의 경량화 연구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1) 자동차 구조 자체를 합리화해 경량화를 추구하는 방법, 2) 자동차 재료를 신소재로 치환해 강도는 강화하고 중량은 줄이는 방법, 3) 프로세스상에서 신 공법을 사용해 경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구조합리화는 차체 설계를 개선해 차체를 최적화하고 부품 모듈화 등을 통해 경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신소재 치환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물성을 갖는 경량재료를 개발해 부품에 적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프로세스는 자동차 제조상에서 공법을 활용해 경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 국내 경량화 관련 업체 중 플라스틱 및 공법업체에 주목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경량화 관련 수혜 업체로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조 업체인 현대EP와 코오롱플라스틱, 공법업체인 엠에스오토텍을 추천한다. 플라스틱 업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경량화 방법 중 가시성이 가장 높고 효과가 큰 방법이 재료 치환방법이며, 그 중 플라스틱은 비중이 가볍고 설계와 제조에 유연성이 있으며 가공에 따라 내구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물성 향상의 한계가 기존 메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스틱업체는 타 재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매출 규모를 확보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공법업체 중 엠에스오토텍을 추천하는 이유는 핫스탬핑 기술을 통해 기존 철강재를 사용해 경량화가 가능하며, 대량생산을 통해 타 소재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YTN(040300)

| |
|--------------------|
| 매수(유지) |
| 목표가: 3,800원(유지) |
| 증가 (10/25): 3,100원 |

광고판매 호조와 비용 통제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 What's new: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

3분기 영업실적은 우리 추정치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32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광고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매출 호조와 비용 통제로 전년동기 대비 74.1% 늘었다. 이는 우리 예상치(38억원)를 38.3% 상회하는 수치다. 순이익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 Positives: 광고판매 호조, 영업비용 통제, 자회사 실적 개선

우리는 YTN의 3분기 실적을 세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 YTN의 11년 3분기 평균 시청점유율은 4.1%로 전년동기 대비 0.6%p 상승했으며 광고판매율은 3분기 연속 100%를 상회했다. 2) 영업비용이 잘 통제되고 있다. 방송매출원가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판관비는 23.8% 감소했다. 3) 자회사 YTN라디오, YTN DMB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지분법 관련 손익은 10년 3분기 2억원 손실에서 11년 3분기에 2억원 이익으로 전환됐다.

■ Negatives: 수신료수익 감소

당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신료 시장이 커져 YTN이 케이블 SO(System operator)로부터 받는 수신료수익이 늘어나 전체 수신료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11년 3분기까지 누적 수신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향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케이블 SO간의 채널 편성 계약에 따라 YTN의 수신료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 안정된 시청점유율을 기반으로 광고판매 호조 예상, 매수 유지

YTN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8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BPS에 목표 PBR 1.0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점유율이 견조하다. 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이 4%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11년, 12년 광고수익은 각각 5.7%, 6.4%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광고판매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고단가 인상도 예상된다. YTN은 07년 이후 광고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2) MBN(매일경제뉴스)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것은 동사에 긍정적이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은 드라마, 예능, 교양 등으로 프로그램이 분산돼 뉴스 부문에서 보도전문채널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 | 3Q11P | | | | 증감률 | | 2011F | |
|----------|-------|------|------|------|--------|-------|-------|------|
| | 추정 | 실적 | 차이 | 컨센서스 | QoQ | YoY | 당사 | 컨센서스 |
| 매출액 | 30.3 | 32.0 | 5.4 | NA | 2.6 | 7.0 | 1,213 | NA |
| 영업이익 | 3.8 | 5.3 | 38.3 | NA | (34.5) | 74.1 | 173 | NA |
| 영업이익률(%) | 12.5 | 16.4 | | | | | 14.3 | |
| 세전이익 | 2.3 | 3.8 | 66.1 | NA | (38.5) | 119.9 | 111 | NA |
| 순이익 | 1.7 | 2.6 | 50.4 | NA | (45.7) | 47.3 | 80 | NA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 |
|---------------------|
| 매수(유지) |
| 목표가: 500,000원(유지) |
| 종가(10/25): 320,500원 |

‘고려은’으로 변신 대성공!

■ What's new :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영업이익으로 2,632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대비 무려 32.5%,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추정한 우리 전망치대비로도 15.2% 상회했다. 연 제련량이 전분기대비 25.8%(전년동기대비 44.8%) 늘었기 때문이다. 연은 아연보다 은 함유량이 10배 이상(표준 품위 기준 아연은 296g/톤, 연은 3,416g/톤)이며 금도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연 제련량이 늘면 금과 은 등 부산물 생산량도 늘게 된다. 금과 은 생산량은 전분기대비 각각 35.7%와 3% 늘었다. 귀금속과 일반 금속 3분기 적용 가격은 8월 하락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의 상승세 덕분에 전분기대비 아연 0.6%, 연 1.9%, 은 1.6%, 동 0.9% 하락에 그쳤고, 금은 오히려 10.1% 상승했다.

■ Positives : 뛰어난 이익 창출 능력 입증

3분기 실적에서 증가한 이익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연 생산량 증가다. 금과 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니 연 제련량을 늘려 부산물인 금과 은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에 No.2 TSL이 완공되어 연과 금, 은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련사는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이익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데, 고려아연은 다른 제련사와 달리 생산량 조절을 통해 능동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제련사로 손색이 없다.

■ Negatives : 4분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익 감소할 것

현재 기본 금속과 은 가격은 3분기 가격보다 낮다. 아연 18.5%, 연 21.3%, 동 17.4%, 그리고 은은 16.8% 낮다. 3분기는 2분기대비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데 그쳐 생산량 증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4분기는 3분기대비 생산량 증가폭도 크지 않은데 가격이 크게 하락해 이익 감소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축적해 놓은 아연이나 연 잔재를 통해 부산물을 추가 생산한다면 이익 감소폭이 줄 가능성은 있다. 잔재를 통한 추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 4분기 영업이익은 2,18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다.

■ 결론 : 목표주가 500,000원 유지

기본 금속과 은 가격 하락을 반영해 2012년 가격 전망을 하향했다. 이에 따라 2012년 EPS도 58,521원에서 50,406원으로 13.8% 하락했다. 그러나 12개월 forward EPS는 직전 보고서 작성시의 49,414원 대비 2% 하락에 그친 48,419원이다. 여기에 목표 PER 10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500,000원을 유지한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56%에 달한다.

| | 3Q11P | | | | 증감률 | | 2011F | |
|----------|-------|-------|--------|-------|-------|-------|-------|-------|
| | 추정 | 실적 | 차이 | 컨센서스 | QoQ | YoY | 당사 | 컨센서스 |
| 매출액 | 1,256 | 1,350 | 7.5 | 1,129 | 1.9 | 91 | 5,154 | 4,710 |
| 영업이익 | 228 | 263 | 15.2 | 199 | 34.4 | 165.7 | 883 | 839 |
| 영업이익률(%) | 18.2 | 19.5 | 1.3%p | 17.6 | 4.7%p | 5.5%p | 17.1 | 17.8 |
| 세전이익 | 259 | 234 | (9.6) | 221 | 13.8 | 58.9 | 923 | 974 |
| 순이익 | 207 | 183 | (11.5) | 178 | 4.2 | 63 | 749 | 762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중립(하향)

목표가: 10,300원(하향)

종가(10/25): 9,390원

내년을 기대하며...

■ What's new : 단기적으로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주가를 10,300원(기존 20,5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는 2012년 BPS 기준 1.6 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는 동사가 09년(ROE 1%)에 적용 받았던 PBR의 하단이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업황의 전반적인 침체가 아직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를 견인할 catalyst 역시 현재로서는 큰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3분기 실적은 우리 및 시장기대치에 못 미쳤다. 전분기 매출의 81%를 차지했던 태양광 및 LCD장비 매출이 업황 침체로 이번 분기에 각각 38%, 79% 감소했고, 전체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39억원)은 적자(-6%)로 전환했다(전분기 영업이익률: 4%).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수주잔고는 7월말(1,207억원)보다 23% 감소한 926억원에 그쳐 4분기에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 Positives : 반도체 장비 부문의 실적은 안정적

태양광과 LCD 부문의 실적이 부진하지만 반도체장비 사업(3분기 매출 238억원, +15% QoQ)은 상대적으로 선방 중이다. 주 고객사인 하이닉스에서 미세공정 전환으로 관련 ALD 장비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미세공정 전환 수요, 미국 및 대만 등지로의 수출 확대로 동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

■ Negatives : 주력사업인 태양광 및 LCD 장비 부문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

반면 주력사업인 태양광 및 LCD 부문의 실적은 업황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 LGD 발주는 이미 내년으로 대거 연기된 상황이고 태양광 역시 올해 내에는 큰 catalyst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모로코 태양광 프로젝트, MEMC JV 등으로부터의 발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하반기보다 개선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 결론 : 업황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상황 -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동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결정형/박막 턴키(turn-key)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4세대 OLED encap 장비를 이미 신규 수주 받았을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이다. 그러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실적 관점에서 볼 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선 LCD, 태양광 업황의 수요 회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단 판단이다.

| | 3Q11P | | | | 증감률 | | 2011F | |
|----------|-------|-------|---------|------|---------|---------|-------|-------|
| | 추정 | 실적 | 차이 | 컨센서스 | QoQ | YoY | 당사 | 컨센서스 |
| 매출액 | 112.2 | 61.8 | (44.9) | 70.0 | (42.8) | (59.6) | 321.2 | 330.2 |
| 영업이익 | 10.1 | (3.9) | (138.1) | 2.2 | (186.4) | (121.3) | 6.6 | 14.6 |
| 영업이익률(%) | 9.0 | (6.3) | | 3.2 | | | 2.1 | 4.4 |
| 4.4 세전이익 | 7.3 | (1.8) | (125.1) | 3.8 | (236.1) | (111.6) | 2.1 | 13.3 |
| 순이익 | 7.3 | (2.3) | (131.5) | 4.9 | (226.8) | (114.6) | 2.1 | 12.4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태광(023160)

| |
|--------------------|
| 매수(신규) |
| 목표가: 27,500원(신규) |
| 종가(10/26): 20,450원 |

근거 있는 자신감

■ 피팅산업 제2의 장기 호황기 진입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7,500원으로 분석을 시작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BPS 13,809원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평균 PBR 2배를 적용했다. 기계업 중 이익 가시성이 가장 높은 피팅산업의 제2의 호황기가 도래했다. 태광의 수주 및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관설비 증설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 확보 등을 고려 시 주가 반등세는 이어질 것이다.

■ 수주의 양(量)과 질(質)이 다르다

올해 들어 월평균 수주액은 2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 호황기였던 2008년의 월평균 수주액 25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수주 증가세는 국내 건설/조선/중공업 업체들의 해외수주 증가와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했던 수출시장 회복 덕분이다. 수주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띈다. 스텐레스 및 Alloy 계열의 고부가 피팅제품 증가로 매출 mix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초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했던 시기에 관찰되었던 단납기 수주물량과 초대형 피팅제품의 대량 수주는 리먼사태 이후 나타났던 피팅업체들의 저가 수주행태와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 실적 개선은 당연한 귀결이다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3분기 예상실적은 매출액 607억원 (YoY +12.2%), 영업이익 66억원 (YoY +269.2%)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5.5%p 상승한 10.8%로 2009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두 자리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 상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요처로부터 단가인상 합의를 이끌어냈고 선별적 수주를 통한 생산성 개선효과가 함께 나타난 결과다. 9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도 기여했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세전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
| 2009A | 262 | 41 | 59 | 44 | 1,958 | (50.6) | 46 | 17.1 | 13.9 | 2.5 | 16.7 |
| 2010A | 216 | 0 | 2 | 2 | 68 | (96.5) | 5 | 391.9 | 114.6 | 2.1 | 0.5 |
| 2011F | 255 | 22 | 22 | 16 | 701 | 930.6 | 28 | 29.2 | 15.9 | 1.6 | 5.5 |
| 2012F | 306 | 46 | 48 | 36 | 1,505 | 114.7 | 53 | 13.6 | 7.5 | 1.5 | 11.2 |
| 2013F | 331 | 60 | 63 | 48 | 1,920 | 27.6 | 67 | 10.7 | 5.5 | 1.3 | 13.1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백화점(069960)

중립(유지)

목표가: 183,000원(상향)

종가(10/25): 170,000원

넘어야 할 산이 높다

■ 투자 의견 중립 유지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적정주가는 기존 160,000원에서 14% 상향 조정된 183,000원을 제시한다. 현재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8%에 불과하다. 적정주가 상향은 추정이익 기준을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며, 적정배수의 변화는 없다. 현재주가는 2012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 대비 9.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경쟁사인 롯데쇼핑, 신세계 대비 각각 15%, 6% 프리미엄이 부여된 수준이다. 절대주가는 하락했지만 valuation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약해지고 있는 소비도 부담이며, 4Q11F, 1Q12F는 전년 동기의 높은 base로 인한 낮은 기존점매출 신장률이 예상된다.

■ 점차 낮아지는 기존점신장률

백화점 3사의 기존점신장률은 1Q11 기록했던 14% YoY를 고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3Q11에는 8% YoY를 나타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Q11 기존점신장률 14% YoY 이후 3Q11에는 7% YoY를 기록했으며, 4분기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우리가 추정하는 현대백화점의 4분기 기존점신장률은 4% YoY이며, 이러한 흐름은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악화, 낮아진 wealth effect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3분기 실적은 예상수준, 4분기도 컨센서스를 충족하지 못할 전망

3분기 영업이익(IFRS 연결기준)은 834억원(+14% YoY)을 기록했다. 이익 증가는 계속되었지만 컨센서스 969억원을 하회했다. 한무쇼핑 무역센터점의 리뉴얼 비용과 대구점의 신규 개점 비용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세전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현대DSF와의 합병차익 577억원이 원인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현재 1,446억원이며, 우리의 추정치는 1,204억원(+9.2% YoY)이다. 우리의 추정치는 4분기 예상 기존점신장률 4% YoY를 기초로 계산된 것이며,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예상했다. 4분기 말로 갈수록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세전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감률 (%) | EBITDA (십억원) | PER (x) | EV/EBITDA (x) | PBR (x) | ROE (%) |
|-------|--------------|---------------|---------------|--------------|------------|------------|-----------------|------------|------------------|------------|------------|
| 2009A | 2,701 | 526 | 567 | 237 | 12,579 | 7.0 | 682 | 8.9 | 5.3 | 1.5 | 14.8 |
| 2010A | 2,849 | 576 | 711 | 292 | 15,476 | 23.0 | 745 | 9.0 | 5.5 | 1.6 | 15.6 |
| 2011F | 4,146 | 452 | 591 | 382 | 16,622 | 7.4 | 672 | 10.2 | 6.4 | 1.7 | 17.3 |
| 2012F | 4,693 | 497 | 640 | 413 | 17,730 | 6.7 | 742 | 9.6 | 5.8 | 1.4 | 16.0 |
| 2013F | 5,059 | 503 | 651 | 421 | 18,040 | 1.7 | 770 | 9.4 | 5.6 | 1.2 | 14.0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0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 구 분 | | 10/19(수)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10/26(수) | |
|------|-------------|----------|----------|----------|----------|----------|----------|---------|
| 유가증권 | 종합주가지수 | 1,855.92 | 1,805.09 | 1,838.38 | 1,898.32 | 1,888.65 | 1,894.31 | |
| | 등락폭 | 17.02 | -50.83 | 33.29 | 59.94 | -9.67 | 5.66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486(6) | 156(9) | 621(8) | 691(16) | 305(10) | 428(11) |
| | | 하락(하한) | 345(0) | 714(2) | 233(1) | 165(0) | 513(1) | 374(1) |
| | ADR | 107.42 | 97.84 | 108.86 | 127.08 | 135.02 | 126.47 | |
| | 이격도 | 10 일 | 102.77 | 99.43 | 100.83 | 103.37 | 102.32 | 102.16 |
| | | 20 일 | 104.75 | 102.02 | 103.79 | 106.57 | 105.33 | 105.18 |
| | 투자심리 | 90 | 80 | 80 | 80 | 70 | 70 | |
| | 거래량 (백만 주) | 336 | 342 | 350 | 369 | 349 | 379 | |
| | 거래대금 (십억 원) | 5,696 | 6,680 | 6,356 | 6,664 | 5,970 | 5,490 | |
| 코스닥 | 코스닥지수 | 488.17 | 469.98 | 481.22 | 493.03 | 492.69 | 497.51 | |
| | 등락폭 | 4.74 | -18.19 | 11.24 | 11.81 | -0.34 | 4.82 | |
| | 등락종목 | 상승(상한) | 557(30) | 178(15) | 727(23) | 740(37) | 391(21) | 516(20) |
| | | 하락(하한) | 393(1) | 795(7) | 239(1) | 225(3) | 565(6) | 424(9) |
| | ADR | 117.35 | 106.97 | 118.59 | 136.55 | 147.18 | 137.38 | |
| | 이격도 | 10 일 | 104.78 | 100.05 | 101.60 | 103.24 | 102.45 | 102.82 |
| | | 20 일 | 107.51 | 103.59 | 105.95 | 108.00 | 106.95 | 107.25 |
| | 투자심리 | 90 | 80 | 80 | 80 | 70 | 70 | |
| | 거래량 (백만 주) | 642 | 700 | 533 | 564 | 652 | 527 | |
| | 거래대금 (십억 원) | 3,909 | 3,976 | 3,450 | 3,469 | 3,684 | 3,231 |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개 인 | 외국인 | 기관계 | (증권)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종기금) | 기 타 | |
|------|---------|----------|----------|---------|---------|----------|----------|---------|----------|---------|----------|
| 유가증권 | 매수 | 3,425.7 | 722.5 | 1,061.1 | 198.3 | 161.4 | 349.2 | 78.2 | 33.3 | 240.7 | 348.9 |
| | 매도 | 3,477.1 | 825.5 | 1,011.6 | 174.8 | 162.3 | 428.0 | 43.3 | 32.4 | 170.8 | 244.0 |
| | 순매수 | -51.4 | -103.0 | 49.5 | 23.5 | -0.9 | -78.8 | 34.9 | 0.9 | 69.9 | 105.0 |
| | 10 월 누계 | -2,831.4 | 887.8 | 1,765.9 | -73.9 | -110.4 | 61.7 | 74.6 | 15.4 | 1,798.4 | 177.8 |
| | 11 년 누계 | 897.1 | -5,844.6 | 6,312.4 | 1,479.8 | -1,537.6 | -3,384.6 | 1,743.9 | -1,782.7 | 9,793.7 | -1,365.0 |
| 코스닥 | 매수 | 3,058.7 | 63.3 | 114.1 | 15.1 | 18.0 | 47.6 | 9.4 | 6.0 | 18.0 | 32.9 |
| | 매도 | 3,078.8 | 70.8 | 86.1 | 6.7 | 11.8 | 42.4 | 6.5 | 2.2 | 16.5 | 33.3 |
| | 순매수 | -20.1 | -7.5 | 28.0 | 8.4 | 6.2 | 5.3 | 2.9 | 3.8 | 1.5 | -0.4 |
| | 10 월 누계 | 336.0 | -360.7 | -16.4 | 23.0 | 13.2 | -135.5 | 17.3 | -12.9 | 78.5 | 41.1 |
| | 11 년 누계 | 150.3 | -834.5 | 938.6 | 142.5 | 276.3 | 76.0 | 141.6 | -131.1 | 433.3 | -254.4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 | 신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전자 | 32,696 | 화학 | -40,190 |
| 건설업 | 15,058 | 금융업 | -28,359 |
| 전기가스업 | 9,114 | 운수장비 | -27,686 |
| LG디스플레이 | 21,573 | 금호석유 | -19,828 |
| 현대건설 | 10,360 | 호남석유 | -15,875 |
| S-Oil | 9,957 | KB금융 | -15,137 |
| LG전자 | 7,657 | 우리금융 | -11,689 |
| 삼성전자 | 7,479 | 고려아연 | -10,866 |

| 연 | | 기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전자 | 24,361 | 금융업 | -3,827 |
| 화학 | 17,120 | 유통업 | -3,368 |
| 운수장비 | 13,197 | 건설업 | -3,260 |
| LG화학 | 12,145 | 금호석유 | -10,960 |
| 삼성전자 | 11,490 | SK이노베이션 | -5,943 |
| 하이닉스 | 10,480 | 케이피케미칼 | -4,240 |
| 한국전력 | 9,092 | 대한항공 | -3,199 |
| 호남석유 | 8,322 | 삼성중공업 | -3,132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 | 행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금융업 | 1,429 | 전기,전자 | -1,170 |
| 운수장비 | 879 | 통신업 | -1,163 |
| 유통업 | 523 | 서비스업 | -934 |
| LG화학 | 1,997 | OCI | -1,899 |
| LG전자 | 1,017 | LG디스플레이 | -1,263 |
| 하나금융지주 | 873 | 금호석유 | -1,236 |
| 현대제철 | 811 | 삼성테크윈 | -1,138 |
| 효성 | 606 | 삼성전기 | -999 |

| 보 | | 험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가스업 | 8,653 | 화학 | -15,768 |
| 서비스업 | 8,619 | 운수장비 | -5,481 |
| 전기,전자 | 6,864 | 금융업 | -3,190 |
| 한국전력 | 7,941 | 금호석유 | -6,718 |
| 삼성전자 | 6,574 | LG디스플레이 | -5,374 |
| 하이닉스 | 4,796 | 현대모비스 | -4,887 |
| 하나금융지주 | 4,346 | KB금융 | -4,736 |
| 호텔신라 | 3,562 | 삼성엔지니어링 | -4,318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 | 관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전기,전자 | 94,805 | 화학 | -37,354 |
| 전기가스업 | 23,487 | 금융업 | -34,891 |
| 통신업 | 14,520 | 운수장고 | -14,138 |
| 삼성전자 | 53,963 | 금호석유 | -41,326 |
| 하이닉스 | 21,925 | KB금융 | -21,779 |
| LG화학 | 21,062 | 우리금융 | -15,654 |
| 한국전력 | 19,398 | 기아차 | -12,064 |
| LG디스플레이 | 17,154 | 호남석유 | -11,180 |
| 현대차 | 15,540 | 삼성엔지니어링 | -10,581 |
| S-Oil | 14,729 | 제일모직 | -10,263 |
| 현대위아 | 13,298 | 현대중공업 | -9,209 |
| 하나금융지주 | 11,025 | 현대백화점 | -8,388 |
| LG | 9,697 | 삼성중공업 | -8,100 |

| 외 | | 국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철강및금속 | 17,093 | 운수장비 | -95,626 |
| 화학 | 16,502 | 전기,전자 | -76,941 |
| 유통업 | 15,205 | 보험 | -5,665 |
| LG화학 | 15,771 | 삼성전자 | -64,850 |
| LG전자 | 15,215 | 현대차 | -43,190 |
| 제일모직 | 12,814 | 현대중공업 | -42,882 |
| GS건설 | 11,357 | LG디스플레이 | -11,701 |
| 현대백화점 | 8,346 | LG | -11,249 |
| 신한지주 | 8,307 | 하나금융지주 | -10,165 |
| 현대제철 | 8,177 | 호남석유 | -8,757 |
| S-Oil | 7,313 | OCI | -8,569 |
| 롯데쇼핑 | 6,704 | NHN | -7,740 |
| 후성 | 6,596 | 삼성생명 | -7,179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투 | | 신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반도체 | 2,577 | 운송장비,부품 | -1,620 |
| 컴퓨터서비스 | 2,518 | 도매 | -655 |
| 디지털컨텐츠 | 2,080 | 인터넷 | -562 |
| JCE | 2,908 | 로엔 | -1,781 |
| 포스코 ICT | 2,280 | 성우하이텍 | -1,638 |
| 원익IPS | 2,096 | 다음 | -1,306 |
| 에스엠 | 1,460 | 이스트소프트 | -899 |
| 멜파스 | 1,297 | AP시스템 | -885 |

| 연 | | 기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컴퓨터서비스 | 1,176 | 디지털컨텐츠 | -1,933 |
| 전문기술 | 952 | 운송장비,부품 | -776 |
| 제약 | 833 | 출판,매체복제 | -545 |
| 인터파크 | 1,343 | 네오위즈게임즈 | -1,291 |
| 포스코 ICT | 1,087 | 서울반도체 | -1,239 |
| 셀트리온 | 801 | OCI머티리얼즈 | -855 |
| 진성티이씨 | 613 | 성우하이텍 | -776 |
| 심택 | 585 | CJ E&M | -607 |

(체결기준: 백만원)

| 은 | | 행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소프트웨어 | 2,497 | 비금속 | -269 |
| 제약 | 439 | 반도체 | -261 |
| 통신장비 | 336 | 전문기술 | -68 |
| 골프존 | 2,391 | 이오테크닉스 | -310 |
| 이노와이어 | 302 | 포스코캠텍 | -269 |
| 메디포스트 | 299 | OCI머티리얼즈 | -260 |
| 솔브레인 | 264 | 조이맥스 | -206 |
| 와이솔 | 240 | 심택 | -185 |

| 보 | | 험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반도체 | 5,438 | 금속 | -1,085 |
| 컴퓨터서비스 | 989 | IT부품 | -627 |
| 인터넷 | 828 | 제약 | -490 |
| 시그네틱스 | 2,426 | 성광밴드 | -714 |
| JCE | 1,359 | 위메이드 | -637 |
| OCI머티리얼즈 | 1,356 | 우주일렉트로 | -603 |
| 다음 | 852 | 네오위즈게임즈 | -515 |
| 포스코 ICT | 740 | 성우하이텍 | -49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기 | | 관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반도체 | 14,082 | 운송장비,부품 | -2,859 |
| 컴퓨터서비스 | 4,705 | 제약 | -1,212 |
| 소프트웨어 | 3,827 | 농업 | -249 |
| 원익IPS | 4,732 | 성우하이텍 | -2,932 |
| 포스코 ICT | 4,228 | 메디포스트 | -1,708 |
| JCE | 3,860 | 서울반도체 | -1,564 |
| STS반도체 | 3,393 | 위메이드 | -1,544 |
| 시그네틱스 | 3,344 | 로엔 | -1,510 |
| 이노와이어 | 3,028 | 네오위즈게임즈 | -1,262 |
| 멜파스 | 2,417 | AP시스템 | -1,038 |
| 골프존 | 2,383 | 이스트소프트 | -899 |
| 인터파크 | 2,351 | CJ E&M | -879 |
| 네패스 | 1,967 | CS | -842 |

| 외 | | 국 | |
|---------|-------|---------|--------|
| 순 매 수 | | 순 매 도 | |
| 금속 | 2,196 | 반도체 | -3,464 |
| 디지털컨텐츠 | 2,010 | 화학 | -1,921 |
| IT부품 | 807 | 기계,장비 | -1,835 |
| 네오위즈게임즈 | 2,398 | 메디포스트 | -2,589 |
| 성광밴드 | 1,800 | AP시스템 | -2,437 |
| 원익IPS | 1,446 | 주성엔지니어링 | -1,896 |
| 씨젠 | 1,069 | GS홈쇼핑 | -1,749 |
| JCE | 746 | 골프존 | -1,733 |
| 안철수연구소 | 665 | 솔브레인 | -1,366 |
| 인프라웨어 | 643 | CJ E&M | -1,078 |
| 인터플렉스 | 599 | 네패스 | -974 |
| 실리콘웍스 | 551 | 컴투스 | -915 |
| 다음 | 532 | 메가스터디 | -744 |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NHN | 13 일 | 대교 | 13 일 |
| 농심 | 10 일 | 두산중공업 | 12 일 |
| 한진해운홀딩스 | 8 일 | 현대증권 | 10 일 |
| SK텔레콤 | 8 일 | 제일모직 | 8 일 |
| 금호타이어 | 8 일 | 한솔제지 | 8 일 |
| 에스원 | 6 일 | 종근당 | 7 일 |
| 한국가스공사 | 6 일 | SK | 6 일 |
| 삼성전자 | 5 일 | 한솔테크닉스 | 6 일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포스코 ICT | 11 일 | 태광 | 15 일 |
| 한빛방송 | 10 일 | 신화인터텍 | 12 일 |
| 파트론 | 7 일 | 성광벤드 | 10 일 |
| 네패스 | 6 일 | 네오위즈게임즈 | 9 일 |
| 에스에프에이 | 6 일 | 인터플렉스 | 7 일 |
| 멜파스 | 6 일 | SBS콘텐츠허브 | 5 일 |
| 테크노세미켄 | 5 일 | 오성엘에스티 | 4 일 |
| 이트레이드증권 | 5 일 | SK컴즈 |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삼성전자 | 313,293 | 현대모비스 | 75,650 |
| 하이닉스 | 139,188 | 기아차 | 46,176 |
| LG화학 | 129,553 | 제일모직 | 44,293 |
| LG전자 | 106,140 | 삼성중공업 | 43,298 |
| 삼성전기 | 90,238 | 하이닉스 | 30,711 |
| LG디스플레이 | 81,431 | GS건설 | 30,141 |
| LG | 66,382 | SK | 28,805 |
| 삼성SDI | 66,195 | POSCO | 28,647 |

| KOSDAQ | | | |
|---------|--------|---------|--------|
| 기 | 관 | 외 | 국 인 |
| 원익IPS | 16,884 | 덕산하이메탈 | 13,593 |
| 에스에프에이 | 14,724 | 네오위즈게임즈 | 9,809 |
| 포스코 ICT | 13,239 | CJ E&M | 8,478 |
| 골프존 | 8,119 | 성광벤드 | 7,219 |
| STS반도체 | 7,961 | 태광 | 3,791 |
| 다음 | 7,677 | 원익IPS | 3,307 |
| CJ오쇼핑 | 7,523 | 인터플렉스 | 2,788 |
| 네패스 | 6,882 | 안철수연구소 | 1,805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종 목 | KOSPI | | |
|--------|--------|--------|--------|
| | 기 | 관 | 외 국 인 |
| 건설업 | 10,260 | 9,931 | 20,190 |
| 통신업 | 14,520 | 203 | 14,723 |
| 음식료품 | 1,808 | 7,748 | 9,556 |
| LG화학 | 21,062 | 15,771 | 36,833 |
| S-Oil | 14,729 | 7,313 | 22,042 |
| 한국전력 | 19,398 | 133 | 19,532 |
| LG전자 | 3,696 | 15,215 | 18,911 |
| 롯데쇼핑 | 4,181 | 6,704 | 10,885 |
| CJ제일제당 | 4,498 | 5,740 | 10,239 |
| 현대건설 | 9,335 | 103 | 9,438 |
| SK | 1,298 | 6,488 | 7,786 |
| LG유플러스 | 5,861 | 1,366 | 7,227 |
| KT&G | 2,611 | 3,708 | 6,319 |

| 종 목 | KOSDAQ | | |
|----------|--------|-------|-------|
| | 기 | 관 | 외 국 인 |
| 소프트웨어 | 3,827 | 102 | 3,929 |
| 디지털컨텐츠 | 1,672 | 2,010 | 3,682 |
| 금속 | 439 | 2,196 | 2,635 |
| 원익IPS | 4,732 | 1,446 | 6,178 |
| JCE | 3,860 | 746 | 4,606 |
| 포스코 ICT | 4,228 | 24 | 4,252 |
| STS반도체 | 3,393 | 107 | 3,500 |
| 이노와이어 | 3,028 | 100 | 3,128 |
| 멜파스 | 2,417 | 383 | 2,800 |
| 에스엠 | 1,741 | 508 | 2,248 |
| 성광벤드 | 15 | 1,800 | 1,815 |
| 심텍 | 1,569 | 60 | 1,629 |
| OCI머티리얼즈 | 1,307 | 249 | 1,556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 KOSPI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연속 일수 |
| 송원산업 | 14 일 | 한일시멘트 | 27 일 |
| 대교 | 10 일 | 아세아시멘트 | 14 일 |
| 고려제강 | 9 일 | 하이트홀딩스 | 13 일 |
| 삼성화재 | 8 일 | S&T중공업 | 10 일 |
| 금호석유 | 8 일 | 현대엘리베이 | 9 일 |
| STX팬오션 | 8 일 | LG디스플레이 | 9 일 |
| 종근당 | 7 일 | SK텔레콤 | 8 일 |
| 동아타이어 | 7 일 | NHN | 8 일 |

| KOSDAQ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연속 일수 |
| 서울반도체 | 18 일 | 동서 | 17 일 |
| 매일유업 | 11 일 | GS홈쇼핑 | 7 일 |
| 에스엔유 | 9 일 | 메가스터디 | 7 일 |
| 포스코컴텍 | 5 일 | 테크노세미캠 | 6 일 |
| KH바텍 | 4 일 | 태산엘시디 | 5 일 |
| 네오위즈게임즈 | 4 일 | 서울반도체 | 5 일 |
| 포스코엠텍 | 3 일 | 에스에프에이 | 5 일 |
| 성우하이텍 | 3 일 | 이트레이드증권 |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KOSPI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누적액 |
| 호남석유 | -157,174 | NHN | -127,709 |
| POSCO | -100,401 | LG | -67,618 |
| 금호석유 | -99,444 | LG디스플레이 | -50,209 |
| 현대모비스 | -63,081 | LG화학 | -45,063 |
| OCI | -62,132 | 하나금융지주 | -32,694 |
| GS | -51,151 | 신한지주 | -28,008 |
| STX팬오션 | -44,842 | 삼성전자우 | -24,392 |
| 현대중공업 | -41,906 | LG전자 | -21,937 |

| KOSDAQ | | | |
|---------|---------|-------|---------|
| 종목 | 기관 | 외국인 | 누적액 |
| CJ E&M | -27,540 | 셀트리온 | -70,195 |
| 에스엠 | -12,744 | 멜파스 | -9,427 |
| SK컴즈 | -9,393 | 다음 | -8,121 |
| 셀트리온 | -9,289 | 크루셜텍 | -7,489 |
| JCE | -7,401 | 서울반도체 | -6,320 |
| 서울반도체 | -7,216 | CJ오쇼핑 | -5,153 |
| 모두투어 | -6,599 | 솔브레인 | -4,949 |
| 네오위즈게임즈 | -5,606 | 컴투스 | -4,03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 종목 | KOSPI | | |
|--------|---------|---------|---------|
| | 기관 | 외국인 | 합계 |
| 운수장비 | -3,067 | -95,626 | -98,693 |
| 종이, 목재 | -311 | -236 | -547 |
| 의료정밀 | -146 | -232 | -379 |
| 현대중공업 | -9,209 | -42,882 | -52,091 |
| 금호석유 | -41,326 | -3,515 | -44,841 |
| 호남석유 | -11,180 | -8,757 | -19,937 |
| OCI | -3,554 | -8,569 | -12,123 |
| 삼성테크윈 | -4,996 | -5,594 | -10,590 |
| 현대모비스 | -4,887 | -5,151 | -10,038 |
| 삼성SDI | -4,051 | -2,317 | -6,368 |
| LG생활건강 | -545 | -5,760 | -6,305 |
| 대우조선해양 | -2,710 | -3,104 | -5,813 |
| 삼성물산 | -286 | -5,332 | -5,618 |

| 종목 | KOSDAQ | | |
|----------|--------|--------|--------|
| | 기관 | 외국인 | 합계 |
| 운송장비, 부품 | -2,859 | -333 | -3,192 |
| 제약 | -1,212 | -1,280 | -2,492 |
| 교육 | -11 | -870 | -881 |
| 메디포스트 | -1,708 | -2,589 | -4,296 |
| AP시스템 | -1,038 | -2,437 | -3,474 |
| 성우하이텍 | -2,932 | -300 | -3,231 |
| 서울반도체 | -1,564 | -399 | -1,963 |
| CJ E&M | -879 | -1,078 | -1,957 |
| 주성엔지니어링 | -59 | -1,896 | -1,954 |
| 로엔 | -1,510 | -132 | -1,643 |
| 이스트소프트 | -899 | -195 | -1,093 |
| 덕산하이메탈 | -501 | -433 | -935 |
| CS | -842 | -37 | -879 |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삼성전자 | 4 | 3,634 | |
| 하이닉스 | 9 | 218 | |
| 삼성화재 | 0 | 99 | |
| POSCO | 0 | 87 | |
| 현대차 | 0 | 72 | |
| 제일모직 | 1 | 64 | |
| 삼성물산 | 1 | 50 | |
| 현대모비스 | 0 | 49 | |

| KOSDAQ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CJ E&M | 0 | 2 | |
| 성우하이텍 | 0 | 0 | |
| 평화정공 | 0 | 0 | |
| 삼천당제약 | 0 | 0 | |
| - | 0 | 0 | |
| - | 0 | 0 | |
| - | 0 | 0 | |
| - | 0 | 0 |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 KOSPI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POSCO | 10,040 | 3,674,761 | |
| 삼성전자 | 2,423 | 2,289,822 | |
| OCI | 4,603 | 952,813 | |
| 현대차 | 3,144 | 716,793 | |
| 현대모비스 | 1,798 | 632,163 | |
| 하이닉스 | 25,903 | 612,596 | |
| 현대중공업 | 2,063 | 608,577 | |
| 삼성전기 | 5,787 | 525,444 | |

| KOSDAQ | | | |
|----------|-------|---------|--|
| 종 목 | 주 수 | 금 액 | |
| 셀트리온 | 8,914 | 346,738 | |
| 서울반도체 | 5,733 | 121,832 | |
| 원익IPS | 3,947 | 36,037 | |
| 메가스터디 | 204 | 26,820 | |
| 네오위즈게임즈 | 334 | 23,128 | |
| 덕산하이메탈 | 768 | 21,193 | |
| OCI머티리얼즈 | 213 | 18,107 | |
| 태웅 | 506 | 16,450 |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 KOSPI | | | |
|---------|-------|---------|--------|
| 순 증 | 순 감 | | |
| 섬유, 의복 | 1,518 | 전기, 전자 | -4,640 |
| 통신업 | 1,428 | 증권 | -3,665 |
| 화학 | 942 | 금융업 | -1,354 |
| LG유플러스 | 1,742 | 삼성증권 | -3,536 |
| OCI | 1,703 | LG디스플레이 | -2,055 |
| 웅진케미칼 | 1,453 | 하이닉스 | -1,163 |
| 두산인프라코어 | 704 | 우리금융 | -1,037 |
| 삼성생명 | 554 | 한화케미칼 | -883 |
| 외환은행 | 442 | 기업은행 | -856 |
| 삼성중공업 | 348 | 삼성전기 | -702 |
| 한진해운 | 324 | 신한지주 | -628 |
| 대우증권 | 323 | 우리투자증권 | -586 |
| KB금융 | 278 | LG전자 | -555 |

| KOSDAQ | | | |
|---------|-----|---------|------|
| 순 증 | 순 감 | | |
| 제약 | 622 | 도매 | -222 |
| 반도체 | 234 | 오락, 문화 | -212 |
| 디지털컨텐츠 | 147 | 기계, 장비 | -128 |
| 셀트리온 | 596 | 대한종합상사 | -212 |
| 아미노로지스 | 315 | 파라다이스 | -212 |
| 네오위즈게임즈 | 177 | 원익IPS | -110 |
| 차바이옴 | 106 | 케이디씨 | -101 |
| 멜파스 | 58 | 영남제분 | -94 |
| SK컴즈 | 56 | 크루셜텍 | -84 |
| 비에이치 | 29 | DMS | -73 |
| 서울반도체 | 26 | 인프라웨어 | -58 |
| 메가스터디 | 17 | 에스엠 | -54 |
| 태웅 | 17 | 포스코 ICT | -53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10/26(수) |
|-------|----------|----------|--------|----------|----------|----------|----------|----------|
| 외국인 | -5,844.6 | 887.8 | 62.7 | -112.2 | -254.7 | 181.7 | 354.3 | -103.0 |
| 기관계 | 6,312.4 | 1,765.9 | 361.5 | 5.5 | 206.9 | 285.0 | -189.0 | 49.5 |
| (투신) | -3,384.6 | 61.7 | -112.3 | -27.2 | 55.5 | 92.8 | -154.8 | -78.8 |
| (연기금) | 10,039.5 | 1,792.6 | 473.0 | 98.4 | 171.4 | 117.6 | 16.6 | 68.9 |
| (은행) | -1,782.7 | 15.4 | 20.6 | -3.2 | 9.5 | 6.7 | 6.7 | 0.9 |
| (보험) | -1,537.6 | -110.4 | -166.2 | -32.8 | -42.0 | -6.8 | -83.7 | -0.9 |
| 개인 | 897.1 | -2,831.4 | -850.1 | 90.6 | 26.3 | -736.8 | -178.9 | -51.4 |
| 기타 | -1,365.0 | 177.8 | 425.9 | 16.1 | 21.4 | 270.0 | 13.6 | 105.0 |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10/19(수)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
| KOSPI | 1,124.47 | 1,682.77 | 2,051.00 | 1,855.92 | 1,805.09 | 1,838.38 | 1,898.32 | 1,888.65 |
| 고객예탁금 | 9336.3 | 12072.0 | 14068.5 | 20401.3 | 20474.0 | 21080.7 | 21064.9 | 19971.7 |
| (증감액) | -746.3 | -714.3 | -228.9 | 180.8 | 72.7 | 606.7 | -15.8 | -1093.2 |
| (회전율) | 46.9 | 52.6 | 51.5 | 47.6 | 52.8 | 47.2 | 48.8 | 49.5 |
| 실질예탁금 증감 | -624.7 | -551.4 | -655.2 | -138.5 | 266.1 | 614.9 | 53.6 | -1054.4 |
| 신용잔고 | 1502.0 | 4359.5 | 5938.3 | 4174.6 | 4213.8 | 4246.2 | 4230.5 | 4287.9 |
| 미수금 | 145.1 | 240.2 | 192.3 | 140.9 | 177.2 | 191.7 | 264.2 | 213.5 |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 구 분 | 설정 잔액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10/19(수)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
| 전체 주식형 | 104,142 | -1,135 | 140 | 161 | -11 | -94 | -17 | -136 |
| (ex. ETF) | | -4,013 | 84 | 38 | 4 | 4 | 9 | -103 |
| 국내 주식형 | 72,140 | 5,124 | 314 | 155 | -6 | -85 | 1 | -140 |
| (ex. ETF) | | 2,228 | 251 | 32 | 9 | 12 | 27 | -107 |
| 해외 주식형 | 32,003 | -6,258 | -173 | 6 | -5 | -8 | -18 | 4 |
| (ex. ETF) | | -6,242 | -166 | 6 | -5 | -8 | -18 | 4 |
| 주식 혼합형 | 12,297 | 436 | 4 | -2 | -2 | 3 | -12 | -26 |
| 채권 혼합형 | 19,636 | 21 | -353 | 31 | -12 | -11 | -18 | -54 |
| 채권형 | 46,729 | -6,054 | -212 | 33 | 56 | -33 | -48 | -19 |
| MMF | 64,765 | -3,424 | 8,407 | 20 | -167 | 1,110 | -512 | 315 |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국 가 | 연간 누계 | 월간 누계 | 5일간 누계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10/26(수) |
|-------|--------|--------|--------|----------|----------|----------|----------|----------|
| 한 국 | -5,436 | -2,333 | 60 | -98 | -225 | 160 | 313 | -91 |
| 대 만 | -9,848 | -622 | 279 | -319 | -69 | 447 | 204 | 16 |
| 인 도 | -309 | -1,156 | -93 | -87 | -36 | 29 | - | - |
| 인도네시아 | 2,004 | -28 | 38 | -22 | -34 | 46 | 22 | 26 |
| 태국 | -571 | -551 | 227 | -4 | 37 | - | 194 | - |
| 남아공 | -2,323 | -69 | -52 | -54 | -89 | 12 | 79 | - |
| 필리핀 | 450 | 68 | 10 | 2 | 2 | 3 | 0 | 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 구 분 | 2010년 | 10/19(수) | 10/20(목) | 10/21(금) | 10/24(월) | 10/25(화) | 10/26(수) |
|-----------------------|----------|----------|----------|----------|----------|----------|----------|
| 회사채 (AA-) | 4.27 | 4.27 | 4.26 | 4.31 | 4.36 | 4.36 | 4.33 |
| 회사채 (BBB-) | 10.26 | 10.20 | 10.19 | 10.24 | 10.28 | 10.28 | 10.25 |
| 국고채 (3년) | 3.38 | 3.45 | 3.44 | 3.49 | 3.53 | 3.53 | 3.50 |
| 국고채 (5년) | 4.08 | 3.59 | 3.58 | 3.63 | 3.67 | 3.67 | 3.63 |
| 국고채 (10년) | 4.52 | 3.85 | 3.85 | 3.90 | 3.94 | 3.94 | 3.92 |
| 미 국채 (10년) | 3.36 | 2.16 | 2.19 | 2.22 | 2.23 | 2.11 | - |
| 일 국채 (10년) | 1.13 | 1.02 | 1.01 | 1.01 | 1.03 | 1.02 | - |
| 원/달러 | 1,134.80 | 1,131.90 | 1,145.00 | 1,147.40 | 1,134.75 | 1,129.00 | 1,132.30 |
| 원/엔 | 1,392.56 | 1,475.00 | 1,488.00 | 1,507.00 | 1,491.00 | 1,489.00 | 1,490.00 |
| 엔/달러 | 81.49 | 76.78 | 76.96 | 76.16 | 76.12 | 75.85 | 76.00 |
| 달러/유로 | 1.33 | 1.37 | 1.37 | 1.38 | 1.38 | 1.39 | 1.39 |
| DDR3 1Gb (1333MHz) | 1.09 | 0.65 | 0.65 | 0.65 | 0.65 | 0.65 | - |
| NAND Flash 16Gb (MLC) | 4.84 | 3.00 | 3.01 | 3.01 | 3.00 | 3.00 | - |
| CRB 지수 | 327.11 | 310.79 | 307.68 | 311.08 | 318.57 | 319.98 | - |
| LME 지수 | 4,164.25 | 3,279.6 | 3,096.8 | 3,242.8 | 3,241.8 | 3,395.9 | - |
| BDI | 1,773 | 2,140 | 2,161 | 2,153 | 2,151 | 2,161 | - |
| 유가 (WTI, 달러/배럴) | 89.84 | 86.11 | 85.30 | 87.22 | 91.17 | 92.99 | - |
| 금 (달러/온스) | 1,405.90 | 1,647.00 | 1,612.90 | 1,636.10 | 1,652.30 | 1,700.40 | -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 | 기초자산 KOSPI200 | 최근월물 1112월물 | 베이스스 | | | 거래량 | 미결제약정 | |
|---------|------------------|----------------|------|-------|-------|---------|---------|--------|
| | | | 이론 | 마감 | 평균 | | 증감 | |
| 10월 20일 | 235.57 | 234.90 | 1.13 | -0.67 | -0.15 | 344,618 | 110,123 | 1,529 |
| 10월 21일 | 240.02 | 239.80 | 1.13 | -0.22 | -0.26 | 337,733 | 108,205 | -1,918 |
| 10월 24일 | 248.21 | 248.15 | 1.09 | -0.06 | 0.31 | 282,877 | 106,886 | -1,319 |
| 10월 25일 | 247.20 | 248.20 | 1.06 | 1.00 | 0.42 | 274,259 | 106,071 | -815 |
| 10월 26일 | 247.56 | 247.25 | 1.07 | -0.31 | 0.45 | 310,256 | 103,796 | -2,275 |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 | 외국인 | 개인 | 기관종합 | | | | | |
|---------|--------|--------|--------|--------|--------|------|-------|-----|
| | | | 증권 | 투신 | 은행 | 보험 | 기금 | |
| 10월 20일 | 1,722 | 3,054 | -2,604 | 470 | -2,589 | -114 | -216 | 60 |
| 10월 21일 | -998 | -583 | 1,416 | 1,306 | 271 | -132 | -114 | -5 |
| 10월 24일 | 4,153 | -1,580 | -512 | -1,508 | 697 | 265 | -64 | -28 |
| 10월 25일 | 640 | 1,418 | -951 | 69 | -1,219 | -187 | 446 | 21 |
| 10월 26일 | -2,379 | -568 | 1,129 | 149 | 243 | 213 | 519 | -48 |
| 누적포지션 | -1,605 | -737 | 8,490 | 607 | -1,102 | 130 | 8,984 | -81 |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 | 프로그램 전체 | | | 비차익거래 | | | 차익거래 | | | 차익거래잔고 | |
|---------|---------|-----|-----|-------|-----|-----|------|-----|-----|--------|-------|
|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순매수 | 매도 | 매수 |
| 10월 20일 | 638 | 624 | -14 | 466 | 460 | -5 | 172 | 163 | -9 | 10,061 | 6,425 |
| 10월 21일 | 703 | 706 | 3 | 438 | 506 | 68 | 266 | 201 | -65 | 10,109 | 6,402 |
| 10월 24일 | 526 | 926 | 400 | 489 | 616 | 127 | 37 | 309 | 272 | 10,029 | 6,576 |
| 10월 25일 | 779 | 947 | 168 | 614 | 759 | 146 | 166 | 188 | 22 | 10,027 | 6,591 |
| 10월 26일 | 625 | 784 | 160 | 501 | 572 | 71 | 124 | 213 | 8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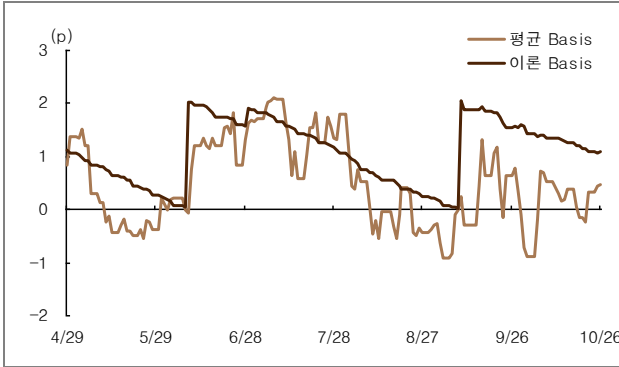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 변동성 | 콜옵션 | | | 행사가격 | 풋옵션 | | | 변동성 |
|-------|--------|-----------|-------|--------|-------|--------|-------|-------|
| | 미결제증감 | 거래량 | 현재가 | | 현재가 | 거래량 | 미결제증감 | |
| 28.24 | 17,248 | 621,125 | 1.65 | 260.00 | 14.85 | 124 | 41 | 35.52 |
| 29.16 | 1,555 | 1,044,473 | 2.35 | 257.50 | 13.00 | 980 | -23 | 35.44 |
| 29.47 | 7,598 | 398,998 | 3.10 | 255.00 | 11.10 | 3,249 | -51 | 34.49 |
| 30.02 | 785 | 83,698 | 4.05 | 252.50 | 9.55 | 2,506 | 186 | 34.78 |
| 31.52 | 1,374 | 80,213 | 5.35 | 250.00 | 8.35 | 20,399 | 390 | 36.13 |
| 30.95 | 262 | 43,383 | 6.40 | 247.50 | 7.25 | 29,095 | 403 | 37.28 |
| 32.36 | 1,500 | 31,758 | 8.00 | 245.00 | 6.00 | 42,318 | 4,592 | 37.01 |
| 33.05 | -230 | 8,894 | 9.60 | 242.50 | 5.15 | 35,761 | 1,625 | 38.13 |
| 34.69 | 114 | 4,738 | 11.50 | 240.00 | 4.45 | 69,295 | 3,217 | 39.46 |
| 33.59 | 28 | 1,506 | 13.05 | 237.50 | 3.75 | 51,692 | 3,611 | 40.24 |
| 34.83 | 50 | 1,265 | 15.10 | 235.00 | 3.20 | 85,304 | 2,431 | 41.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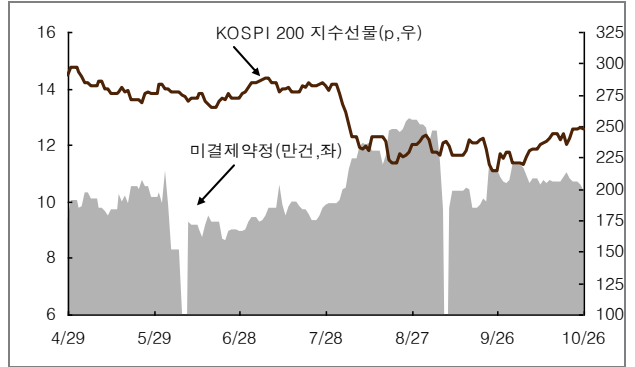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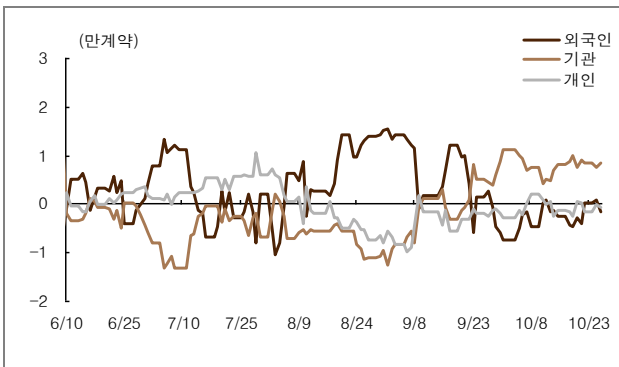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5 (전 거래일 대비 0.03 상승)
- 이론 Basis: 1.0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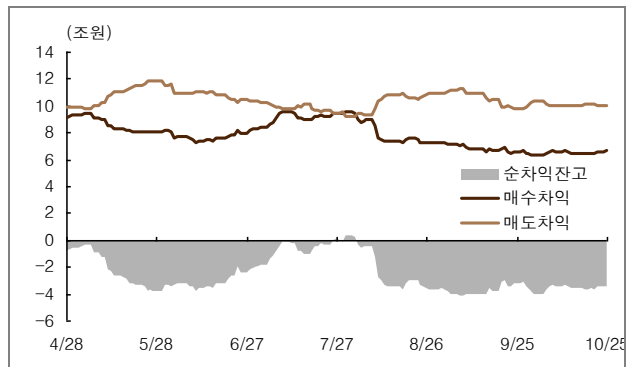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275 계약 감소한 103,796 계약
- 선물가격(247.25): 전 거래일 대비 0.9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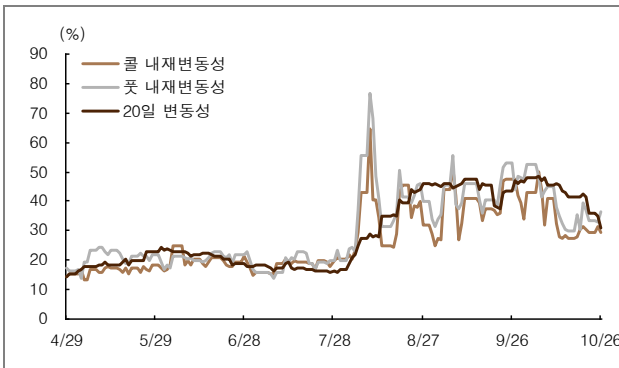
- 외국인: 2,379 계약 순매도
- 기관: 1,129 계약 순매수 / 개인: 568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888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711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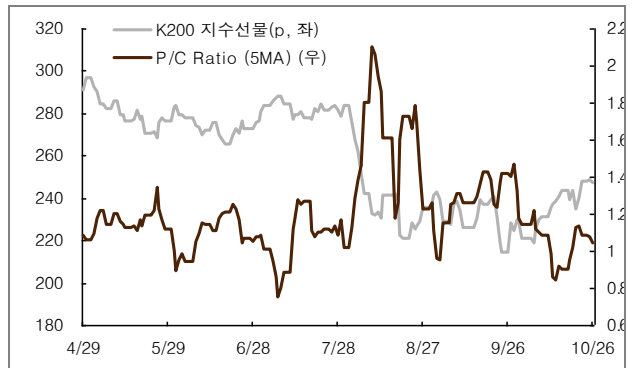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29.4% / 풋 36.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30.7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5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7 | 18 | 19 | 20 | 21 |
| 韓> 9월 백화점 매출 YoY (6.5%, n/a, 8.3%) 9월 할인점 매출 YoY (-1.1%, n/a, 2.0%) 美>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8.48, -4.00, -8.82) 9월 산업생산 MoM (0.2%, 0.2%, 0.2%) | 美>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9%, 6.4%, 6.5%) 中> 3Q 실질 GDP YoY (9.4%, 9.5%, 9.6%) 9월 산업생산 YoY (13.8%, 13.4%, 13.5%) 9월 소매판매 YoY (17.7%, 17.0%, 17.0%) 9월 Actual FDI YoY (7.9%, n/a, 11.1%) |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4.9%, n/a, 1.3%)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9%, 3.9%, 3.8%) 9월 주택건설 착공 MoM (15.0%, 3.3%, -5.0%) 9월 건축 허가 MoM (-5.0%, -2.4%, 3.2%) |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0.3만, 40.0만, 40.4만) 9월 경기선행지수 MoM (0.2%, 0.2%, 0.3%) 10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8.7, -9.4, -17.5) 9월 기준주택매매 MoM (-3.0%, -2.3%, 7.7%) | 유럽> (10/23) EU 정상회담 |
| 24 | 25 | 26 | 27 | 28 |
| 유럽> 10월 PMI-제조업 (47.3, 48.0, 48.5) 10월 PMI-서비스 (47.2, 48.5, 48.8) 日> 9월 무역-수출 YoY (2.4%, 1.0%, 2.8%) 9월 무역-수입 YoY (12.1%, 13.0%, 19.2%)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호남석유, OCI머티리얼즈 美 캐터필러,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 美> 8월 S&P/CS 20개 도시 MoM SA (-0.05%, 0.10%, 0.05%) 10월 소비자 기대지수 (39.8, 46.0, 45.4) 8월 주택가격지수 MoN (-0.1%, 0.2%, 0.8%) 10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6, 1, -6) 실적발표> 韓 LG생활건강, 삼성테크윈, SBS, 주성엔지니어링 美 제록스, US스틸, 델타항공 |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4.9%) 9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1.7%, -2.3%) 유럽> EU 정상회담 실적발표> 韓 LG전자, 넥센타이어, GS건설 美 스프린트 넥스텔, 비자, 엑손모빌 | 韓> 3Q 실질 GDP YoY (n/a, 3.4%, 3.4%) 10월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9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40.1만, 40.3만)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2.5%, 1.3%) 9월 미경주주택매매 MoM (n/a, 0.4%, -1.2%) 中> 9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1.83) 日> 10월 BOJ 회의 (n/a, 0.10%, 0.10%) 실적발표> 韓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유한양행, 삼성전기, 대웅제약, 전북은행, 삼성SDI, 서울반도체, 하이닉스, 삼성물산, S-Oil, LG유플러스, SK텔레콤 美 다투케미칼 | 美> 10월 미시군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n/a, 58.0, 57.5) 日> 9월 국내 CPI YoY (n/a, 0.1%, 0.2%) 9월 산업생산 YoY (n/a, -2.3%, 0.4%) 9월 자동차생산 YoY (n/a, n/a, 1.8%) 실적발표> 韓 녹십자,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삼성전자, 현대건설, KB금융,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동아제약, CJ CGV |
| 31 | 1 | 2 | 3 | 4 |
| 韓> 11월 BSI-제조업 11월 BSI-비제조업 9월 산업생산 YoY 9월 경기종합선행지수 실적발표> 韓 LG이노텍,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0월 무역-수출 YoY 10월 무역-수입 YoY 美> 10월 ISM 제조업지수 유럽> 10월 PMI-제조업 中> 10월 PMI-제조업 실적발표> 美 하이자 | 韓> 10월 외환보유액(미확정) 美> FOMC 금리결정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월 ADP 취업자 변동 日> 10월 본원통화 YoY 실적발표> 美 컴캐스트, 크래프트 푸즈, KKR, AOL |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9월 제조업수주 MoM 유럽> G20 정상회담 ECB 금리 결정 10월 PMI-서비스 中> 10월 PMI-비제조업 실적발표> 美 스타벅스 | 美>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10월 실업률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